

## 독자 소감문

“송상현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를 읽고 서신, 페이스북,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의 소감문을 게시합니다.

II 나의 스승 (1)      2020. 11. 16.

나의 평생을 눈과 마음으로  
바라 보아 주신  
스승의 팔순이어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겸하신다 면서  
그날 시간이 되면 초청장을 보내겠노라  
전갈을 보내셨으니  
마침 선약도 없으니  
(가장 귀한 모임으로 받들어)  
참석하겠노라고 답하고  
(저의 미미한 여생을 바쳐  
스승님의 걸어 오신 발자취의  
100분의 1 이라도 달려가 보겠노라고)  
다짐도 하면서  
스승님의 팔순 모임에  
두등실 날아가는 마음으로  
가서 뵙겠노라  
마음이 삭혀 지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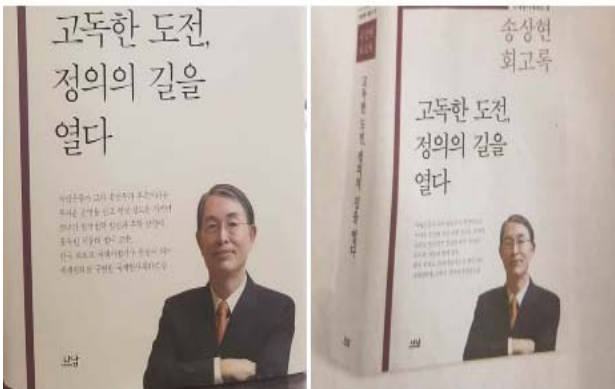
황정근

5시간 · ✨

● 송상현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나남, 2020). 총 1064면.

나는 학창시절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배웠다. 어려운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해주시 수업시간이 늘 기다려졌고,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하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을 지낼 정도로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국보급 법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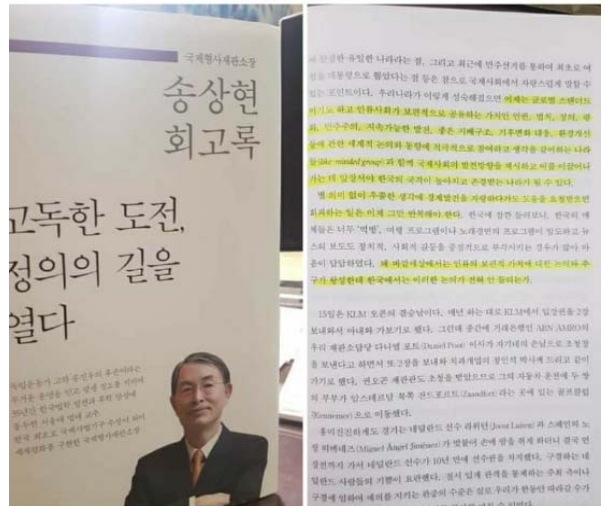


황정근

22시간 · ✨

● 송상현 선생(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경교

“한국은 경제성장만 내세우고 인권, 법치, 민주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등한시하면서 무식함이나 거만함을 계속 보이다가는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 크게 한번 망신 당할 날이 있을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고위관료가 하나같이 인식이 없으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나라>로 국격이 격상되기는 요원한 것 같다.”  
— 송상현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 2020), 624면.



보낸 사람: 全祐正 JON Woo-Jung  
보낸 날짜: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2:23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존경하는 송상현 선생님께

존경하는 송상현 선생님께

항상 선생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대하드라마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를 가장 먼저 주문하여 탐독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영국 유학시절 등 유학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되고 실감 났습니다. 창동에서의 추억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역임 당시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기록해 주셔서 마치 소설을 읽듯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감동하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尊敬)함을 넘어 경이(驚異)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수많은 업적들에 더하여, 선생님의 고귀한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접경험 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후학들에게 실로 귀한 경험과 지혜의 보고(寶庫)로서 이 또한 숭고한 선생님의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책 두께가 교과서 수준으로 두꺼워서 앞으로 제 인생의 교과서로 모시고 지침으로 삼으려 합니다. 김상협 총장님 관련 일화도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양한 외국대학에서 강의하신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학부생이었던 그 시절에 선생님께서 한국법을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셨을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생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선생님께 보은(報恩)을 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 전우정 올림

=====

보낸 사람: 이기철  
보낸 날짜: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8:24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회고록

존경하옵는 회장님께

어제 퇴근해서 자정부터 회고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6.25 때 이야기, 사무

관, 군법무관 시절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유학기에서 교수시절 이야기까지 너무나 재미 있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가끔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책으로 보니 훨씬 한국의 현대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명문대가 유복한 가정에서 쉬운 생활만 하신 줄 알았는데 좌절도 여러 차례 겪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웠던 선택은 중앙고등학교를 가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고 숙직실이 3.1 운동의 원천이었다는 말을 고교시절 들었을 때 좀 과장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장님의 회고록을 보니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시절 회장님의 한국 법학계에 대한 기여를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위대한 선구자로서의 고초도 많으셨습니다.

솔직하신 감정을 쉬운 문체로 담담하게 쓰셔서 마음속으로 더욱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소설 같기도 합니다. 빨리 근무시간이 끝날 것이 기다려집니다.

책 마지막의 색인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7번이나 저를 언급하셨더군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높게 평가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랑을 하려 합니다.

회장님, 두 번이나 회장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이기철 배상

=====

보낸 사람: HurBum

보낸 날짜: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11:28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선생님 내외분께 올리는 안부

선생님 내외분께,

선생님 내외분 평안하신지요?

학수고대하던 연말 송년모임에서 선생님 내외분을 직접 뵙지 못한 채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낙담하고 실망되지만 선생님께 마음을 대신하여 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선생님 내외분께 글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새롭게 변해버린 세상을 보면서 해외에 있을 때 경험했던 2008년 금융위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코로나로 미치는 영향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방면에서 훨씬 더 심대하지만 몸으로 느낀 절박했던 기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절체절명의 시절 특별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던 선생님 내외분의 음성과 글이 귀에 아직도 생생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소망 가운데 일어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직접 보내주신 회고록을 선물로 받고 또다른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얼마나 기뻐는

지 모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시대정신인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몸소 삶으로 이루어 오신 선생님 내외분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책으로 대하게 되어 저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늘 들어왔던 노래이지만 마음을 다해 진정성으로 따뜻하게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가 전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한 해였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중요한 가치를 선생님 내외분 걸어오신 발자취가 담긴 글을 통해 가까이에서 새롭고 생생하게 만나게 되어 커다란 감동이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귀한 가르침이 저희 내외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고 진실하게 살기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망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런던에 있는 저희 딸 (허 윤)과 Tom Lord 군도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는 온라인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준비해왔던 해외 law firm과의 alliance가 진전이 있어서 정부에 예비심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대로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이 나오면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platform에서 힘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선물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선생님 내외분과 가족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허 범 / 염혜경 올림

=====

보낸 사람: "박준"

보낸 날짜: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12:39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자서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송상현 선생님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먼저 자서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주말에 자서전을 받아보고 우선 언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을 집필하셨는지 감탄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책을 펼쳐보니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마치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사람이 먼저 읽겠다고 하여 저는 며칠 기다려야 제대로 읽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는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어 출판기념회를 계획대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준 올림

보낸 사람: Hoshin Won  
보낸 날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8:29  
받는 사람: Sang-Hyun Song  
참조: Min Yong CHOI  
제목: 감사 인사

존경하는 소장님께,

얼마 전 회고록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요. 이렇게 사무실로 배송된 책자를 보고서야 메일을 드리는 걸레를 너그러이 헤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시절부터 30년 가까이 뵈고 흠모하던 교수님, 소장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탈하게 읊어 나가신 글을 읽으니, 제가 소장님과 함께 헤이그와 뉴욕 등지를 누비고 다녔던 것처럼 신이 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크나큰 기여를 하신 데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조금이나마 저희 부부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입니다. 지금도 교수님을 찾아뵈었던 그날, 아내의 그림을 칭찬해 주시던 그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오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행복이 내년 한 해에도 가내에 가득하길 저희 부부 손모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에서 원호신, 최민용 올림

=====

보낸 사람: 황명준  
보낸 날짜: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전 3:25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교수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께

2021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는 코로나도 차차 진정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한 해이기를 기원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교수님의 책도 읽어보면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성탄 음악까지 흘러나오는 예쁜 성탄 카드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

황명준 올림

보낸 사람: Sangyep Song  
보낸 날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전 5:17  
받는 사람: Sang-Hyun Song  
제목: 교수님 책 가슴에 품고 읽습니다.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책 어제 받고 오후 내내 밤늦게 까지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문체에서 들려오는 교수님 목소리가 느껴져서, 참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등불이라는 표현이 많은 제자분들이 마음에서 절로 우러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번 정독하고, 하루하루 일처리 하다가, 마른 대지에 단비 젖듯 베풀어주는 감명을 받습니다.  
더욱 건강히 저희들 곁에 계셔 주십시오.  
2020. 1. 5.

송상엽 올림

=====

보낸 사람: 송진한  
보낸 날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전 10:09  
받는 사람: Song Sang-Hyun  
제목: 소장님께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잘 계시지요. 움츠러들고 어수선한 어딘지 모를 삭막함과 우울함이 넘치는 세월에 교수님의 내면과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말 한파의 차갑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파로스 등대의 빛과 소명처럼 멀리서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리 하시고자 했던 법학 분야의 일본의 잔재를 없애시고자 교육과정에서부터 고심하셨던 것은 감명이었습니다. 기본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해서 그리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법의 두 분야를 근본으로 하시면서 시대적 요청이었던 해사법이나 지적소유권 그리고 외국에서의 한국관련 경제법의 정립과 그 사승까지 원려가 있으셨던 같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대외적 활동에 따른 유혹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일관된 영역은 교수와 후학 양성에 있지 않았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기에 앞서 사사, 랍비, 구루, 선생으로서의 영역이었고 자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이 길의 원초적 자료라고 여기면서 이를 기저로 교수님의 어록과 기록이 법학 갈래의 하나로 정립되길 바랍니다.

진한 절 올립니다.

송 박사님

새해 건강하시고 과제와 도전 많은 이 나라의 큰 등불 되소서.  
보내주신 회고록 감사합니다. 회고록 중 몇 대목을 관심 갖고 읽었습니다.  
이 나라 보수의 본적지 가문다운 절제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새해 송 박사의 지혜와 활동을 기대하고 하느님의 가호를 빕니다.

김진현 드림

=====

존경하는 송상현 교수님께 드립니다.

그간 건안하신지요? 최근에 나남출판의 조상호 대표님으로부터 교수님의 귀한 회고록 출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후학으로서 곧 읽고서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연세대 박명림 배상

=====

선생님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내주신 회고록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길도 막막하지만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사모님과 온가족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김갑유 올림

=====

선생님 회고록 방대한 분량이어서 긴 시간을 따로 내어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찬찬히 보니 스토리 하나하나가 단막극처럼 되어 있어 짬짬이, 목차순서와 관계없이 읽어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간결하고 담담하게 풀어내신 것도 독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대학시절 이야기, 군법무관 시절 이야기는 솔직히 현재 선생님의 모습과는 매치가 잘 안됩니다. 하여간 시간나는대로 읽고 배우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책을 꼭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보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남근 올림



선생님, 새해 문안인사 올립니다.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 편안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선생님께서 작년 출간하신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일부 전해만 듣던 내용들을 선생님의 글의 통하여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자세한 디테일을 다 메모하거나 기억하시어 회고록을 집필하신 점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고법에서 조정총괄재판장으로 복귀하여 재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옥체를 잘 살피시고, 역병이 피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 새해 원단(元旦)

이태종 올림

=====

교수님, 보내주신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  
다만 책 내용도 선생님의 치밀하시면서도 꾸밈없는 성품이 그대로 느껴져 크게 감동을 받  
았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형님 내외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광 배상

=====

저도 선생님의 회고록을 받아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루신 업적에 존  
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과 함께 행복 충만한 신축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자 이기수 근배

=====

선생님 회고록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일기 형식의 방대한 기록과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 흔  
들림 없이 신념과 소신을 지켜오신 삶의 무게에 압도감을 느낍니다. 새해에 더욱 건안하시  
길 빌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세밑인사 드립니다.

조태열 올림

송교수님!

1000쪽이 넘는 역작을 방금 전 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일본색을 가능한 한 많  
이 줄이려 애쓰셨다는 서언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박효근

=====

존경하는 선생님께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COVID-19로 인해 고하선생님 추모행사에서도 뵙지를 못했어요.

오늘 2020년을 보내는 날, 연구실에 나와 있다가 귀한 회고록을 전해 받았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수많은 후학들의 삶에 길잡이가 되어 주신 선생님의 회고록이기에 표현할 수 없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서둘러 서문을 읽었습니다.

저희 후학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면서 진정성을 갖고, 좀 사회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마음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도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갖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전인미답의 위대한 도전을 기억하며 앞으로 사회발전과 민사법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법학이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세계법학에서 비교법 연구의 대상이 되도록 후학양성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회고록을 새해를 맞으며 충실히 읽고 더욱 배우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계속해서 배움의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려요.

새해에도 선생님 가내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광주에서 성승현 올림

=====

송 선배님께,

그동안 적조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송 선배님의 귀한 활동을 조금이나마 접하고 있어, 언제 한번 인사라도 드린다는 게 그만 한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고록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읽어 가르침을 새기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지도력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0 세모에 신영무 배상

송교수님

오늘 책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에 귀한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군 이야기에 제 사위라는 것까지 부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보내주신 책은 사위한테 보내겠습니다. 지난 한해 더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운 행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손병두 올림

=====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잠깐 훑어만 보아도 한 학자의 경이로운 인생항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상화

=====

존경하는 송상현 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내주신 귀한 회고록을 잘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정독해서 많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안하시길 기원드리오며, 출판기념회에 필히 참석하여 인사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황철규 배상

=====

송교수님.

보내주신 회고록을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문체도 간결하고 내용도 너무 흥미롭습니다. 추억의 NYU 시절을 쓰신 부분을 보니 감회도 새로웠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모델이 되신 선생님의 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후학들이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올림.

=====

교수님 ^^

소중한 저서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독하고 또 정독 하여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80학번 한상욱 드림

=====

교수님,

회고록 감사히 받았습니다.  
지나온 과정마다의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새해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부구욱 배

=====

송상현박사님!

평생 대한민국 법학선진화 그리고 세계평화구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 오신 희생과 봉사  
존경과 감사의 뜻을 보내드립니다!  
새해 더욱 강건하시어 후손들에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리웁니다!  
해피뉴이어!

김종량 拜上

=====

보내주신 자서전 읽고 있습니다.  
읽을수록 더욱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신가운데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김영원 배상

=====

송상현 박사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빛나는 삶을 기록한 멋진 자서전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본인과 본인 아들의 이름도 발견했습니다.  
찬찬히 읽겠습니다.

남시욱 드림

=====

서울법대에서 선망의 눈으로 30대 선생님을 뵈은 게 엇그제 같은데,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 강건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홍석조 올림

=====

심당 선생,

보내주신 회고록 고맙게 받아 잘 읽고 있소.

나는 남의 회고록을 별로 읽지 않는 편인데 이번 경우는 정말 다르오. 어찌 그리 옛날의 일들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을 해 놓았는지 감탄을 금할 수 없소. 또 글들이 생동하는 것 같이 사실감이 있어 흥미를 자아내고 한번 손에 잡으면 놓지 않고 계속 읽게 되오.

이 책을 읽으면서 송 교수의 오늘날은 단순히 머리가 총명한 덕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송 교수의 성실함과 부단한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을 재삼 느끼게 되오.

이 책은 청운의 뜻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指針을 준다고 생각하오.

송 교수와 송 교수의 업적은 진정 경기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오.

출간을 거듭 축하드리고 계속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길을 묻는 후학들에게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만기 드림

=====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보내주시기 전에 저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은 교수님 명의로 제 매형인 박상기 前 駐제네바 대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감사 인사 여쭙어 주십시오.

이인용 드림

값진 회고록을 특별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집의 귀중한 책으로 보관하여 애들  
에게 물려줄것네. 우리 동창이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로, 동문수학한 친구로서 항상 자랑스럽  
게 생각하네. 세계인류에게 시련과 도전을 안겨 주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세계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에 송상현 동문의 업적이 돋보입니다.

2021.1.14. 심영수

=====

선생님 회고록 잘 수령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고,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최태현 올림

=====

송상현 선생님께,

지난 한해 건강히 보내셨는지요? 제가 연말연초에 합숙으로 진행되는 출장을 가게 되어서  
조금 이른 연말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혼신의 정성을 담은 자서전 출간 소식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저를 포함한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허성욱 올림

=====

명신아,

보내준 송 교수님 회고록 계속 감동속에서 잘 읽고 있다. 아직 끝까지는 다 못 읽었지만 지  
금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너무 송 교수님의 훌륭하신 면모를 알게 되어 감동의 연속이네. 그  
동안 이루신 엄청난 업적, 교수로서의 모범적이신 자세와 방대한 연구결과물들, 헤이그에서  
의 대단하신 역할 등 정말 여러모로 존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CAREER를 이루셨구나.

우리 형부가 경기고55회, 우리 남편이 54회인데 동시대의 비슷한 연령대에 계셔서 더욱 실  
감나고 친밀한 느낌과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중간 중간에 네 얘기도 나와 많이 반가웠고...

너도 참 큰 내조를 했드구나.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된다.

이런 좋은 책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어 거듭 고맙다. 새해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며 곧 만  
날 수 있는 날 기다릴게~^^

최은주

존경하는 송상현 교수님께.

제가 판사로 근무하던 2002년 미국 연수를 준비하면서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학부시절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뿐인 저에게, 교수님께서 선뜻 추천서를 써 주셨습니다. 벌써 18년 전의 일이지만, 추천서를 작성하기 전 면담에서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교수님 표현은 국내에서 풀 어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대 졸업생들이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교수님 표현은 진득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관견 법을 공부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지를 교수님께 여쭙었더니, 이 분야가 너무 좁아서 자리가 나기 어려우니 그보다 넓은 과목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도움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감사인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교수님께서 내신 회고록에서 무리하게 추천서를 부탁받으셨던 대목(회고록 186면)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무리하게 추천서를 부탁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때늦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고록을 통해 알 된 교수님의 삶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화여대 로스쿨 정재훈 교수 드립니다.

2020.12. 정재훈 드림

=====

교수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즐거운 일을 많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말에 귀한 교수님 책을 전달받고 읽기 시작하였는데, 글 내용이 너무 진솔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연말연시에 책을 완독하고 문자를 드리려 했는데 새해 초에 급한 일들이 생겨서 완독이 늦어지는 바람에 새해 인사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책이 재미있는데 포함된 내용이 많아 생각보다는 진도가 나지 않고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2월 모임은 꼭 가능하기를 빌고 그날 뵙겠습니다.

제자 이재환 올림

=====

존경하는 송상현선생님께,

얼마 전 저에게 보내주신 '회고록'을 주말에나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으며 저희집안과 거의 같은 동네에 사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돈암동, 성북동, 삼선교, 동선동에 살았습니다. 저는 돈암동에서 출생했구요. 제 형 윤영섭 교수는 경기61회, 저는 69회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 회고록이 처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일찍 떠나 유펜에서 학부를 하고, 듀크법대에서 JD와 LLM in International Law 공부를 하였고, 워싱턴 DC에서 국제통상일을 했기에,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국제법 분야에서 일한 공통점이 또 있긴 합니다.

저의 경력은 law firm에서 '상업적'이었는데, 선생님은 한국서 학부를 하신 분이 ICC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Top position까지 가신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에 귀중한 업적이고, 요즘 공부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큰 본보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들도 성장해 이런 큰 글로벌무대에서 선생님처럼 활약을 해야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선진국이 될 것이기에 정말 유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윤영각 드림

=====

명신아 회고록 읽으며 송 교수님 못지않게 옆에서 내조 잘 해온 네게도 큰 박수와 칭찬 해 주고 싶어. 너희 부부가 정말로 자랑스러워.

엄규순





## 宋相現 교수님께

늘 한 해를 선생님께서 세배드리러 가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정으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 전화로라도 새해 인사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성취나 내용의 자서전을 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늦어 보였습니다.  
1년시 진부 건을 흠이 여러 우연으로 수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저의 아내님께서 이미 훨씬 전에  
맡으시고 감사의 뜻을 전해드려야 분부하셨는데  
이런 늦게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자서전에 담긴 내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singular한 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비록 다소  
생각해 봅니다. 70이전에 달하는 주재하시면서



재판관 및 상임의사의 기록은 주재형사법사에 기록을  
대기록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근대사학 學知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각 전체에서 하위라는  
비중이 작아 처음에는 아쉽게 느껴졌는데만  
그 부분이 30여년에 달하는 많은 풍부한 사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국 법사 사회 모습'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서 진각히 보어드렸으며 할 줄은  
할 따름 보어드리지 못한 것으로 기억되는 소중한 자료로  
결과를 보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모임에 대해  
여론이 있고, 조언해주신 이후에 따라 관심을 교수님들  
많은 인터뷰한 것이 있어 그 결과물을 보어드렸으며  
했는데, Cambridge Univ. Press의 부탁한 hard copy가  
아직도 많이 남아 그런 좋은 자료를 보어드리지 못한  
이렇게 불행분을 보드립니다. 법사 사회 모습과  
선생님, 강우진 교수님의 역할은 입감되어 풀이하였습니다.

Chulwoo Lee, Ph.D.  
Professor of Law | Yonsei Law School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Republic of Korea  
Phone: +82-(0)2-2123-6025  
Email: chulwoo.lee@yonsei.ac.kr



法學博士 / 教授 李 喆 雨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120-749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延世路 50  
電話: +82-(0)2-2123-6025  
Email: chulwoo.lee@yonsei.ac.kr

아울러 윤진수 교수 등의 주도로 여러 사람이 같은  
모임에 참여해 충분한 책갈피와 제각각  
함양을 평정을 수족관 책을 반드시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8일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는지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1. 22.

이 철 우 올림

송 교수,

잘 지내지요?

주간동아(1275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 반가웠어요.

또 반가웠던 것은 송 교수가 Bach의 무반주 첼로조곡을 즐겨 듣는다는 걸 알게 된거지요(회고록 p. 1043). 나도 그 곡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여러 첼리스트의 훌륭한 연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섬세하면서도 따듯한 정감이 감도는 Maurice Gendron의 연주(LP판)를 즐겨 듣는 편이지요. 그 외에 이곡을 다른 종류의 악기(예: guitar, double bass, recorders, traverso, lute, saxophonettes 등)로 연주한 버전을 듣는 것도 別味이고요.

송 교수 이번 辛丑年에도 좋아하시는 음악 많이 들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

한편의 교과서이고 또 한편의 대하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 못난 친구를 잊지 않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집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2021.2.5. 김기천

=====

송상현 박사.

대단한 자서전을 잘 받고 이곳 Seattle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감명을 받았겠지만 어린 시절을 짝으로 지낸 사람은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시니 더욱 건강하게 여러사람에게 좋은 사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외분 더욱 건강하십시오.

박영주 드림.

=====

날짜: 21/2/16 오전 1:42 (GMT+09:00)

받은 사람: Song Sang-Hyun

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조정희씨한테 출판기념회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계획들을 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을  
뵙고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제자들도 많은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녀석 진욱이가 선생님께서 이번에 쓰신 회  
고록을 본인 용돈으로 직접 구입하여 현대고등학교와 서초구의 청소년 도서관에 10권정도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실린 국제형사재판소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학교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에 기부를 해서 후배들이 국제형사재판소와 선생님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저보다 기특한 것 같습니다.

2월이지만 아직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모두 건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맛있는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중기 올림

=====

교수님~

보내주신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잘 읽고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영소 올림

=====

교수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뵙지도 못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얼마전에 교수님께서 친히 회고록을 보내주시어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풍부하게 사진이 있어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있었던 경험과 소회에 대해서는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안정되어 예전처럼 얼굴 뵙고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대법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제자 지귀연 올림

장편 기록영화 같은 긴 회고록을 다 읽고 머리를 숙입니다.  
서방님은 한국 한국인이 아닌 명실공히 세계 세계속의 한국인이십니다.  
하늘에서 작은아버님 내외분께서 “내아들 장하다, 수고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화옥 형수

=====

책, 고맙게 잘 받았네. 한마디로 '압도적'이었네.  
크게 축하드리네.  
그날 만나세.

안병영 드림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송상현 박사님  
보내주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뵙고 축하의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였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상면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

소장님!  
금번 산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회고록을 보면서 소장님처럼 큰 어른을 모시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저  
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따로 인  
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4.19. 서 정 배상

=====

[송상현 회고록 -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 송상현, 나남(2020)

교수로서는 진작 은퇴하신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다른 호칭보다는 교수님이 훨씬 더 익숙하  
다. 실제로 수업도 몇 과목 수강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된 것은 2학년 이후의 일이고, 첫 만남은 그 전의 일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학교에 모아 한 반 정도씩 나누어 놓고 교수님 한 분이 들어와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는데, 그때 본인이 속한 반에 들어온 분이 송교수님이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이며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지만, 영어를 열심히 해야한다.'

는 말씀이었다. '영어부터'인지 '영어도'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본 총재의 문제'는, 그 말씀만 내내 선명히 기억하면서 지냈고 실제로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영어를 청취하면 3분 내지 5분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귀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나면 어렸을 때 들었던 팝송같아진다. 그냥 하나의 선율로 들리고, 'is', 'he', 'father' 수준의 단어만 귀에 들어온다.  
'송교수님의 문제'는, 그때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영어공부를 독려하지 않으신 점에 있다고 감히 적어본다.

\* 회고록은 에필로그까지 포함하여 1043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을 읽기 위해 자발적 자가격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임채웅 변호사 페이스북 (2021. 5. 3.)

=====

송대감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멋진 대작, 세계인들의 귀감, 리더의 빛나는 회고록,  
축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많은 감동 주시는 세계적인 석학 중의 석학~  
어려운 때  
건강 유념 항상  
잘 하시길!  
송병락 배

=====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조은희입니다.  
보내주신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남영찬 대표가 제 남편인데, 교수님 책을 20권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은사님이시라더군요. 현재 고등법원 부장으로 있는 조영철 부장이 제 오라버니인데 같이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한국 법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내 도서관에도 비치해 주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올림. 2021.5.14.

선생님.  
오래 적조했습니다.  
뒤늦게야 선생님의 장대한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정교한 기록은 당대인은 물론 후세에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간 이루신 성과와 함께 기여하신 공적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한 건강과 행복한 가정의 축복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경환 올림 (2021.5.31)

=====

존경하는 송상현 교수님  
보내주신 회고록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교수님께서 살아오신 발자취에서 가르침을 받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직사회 만들어나가는 사명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재형 올림 (2021.6.1)

=====